現代中國語 兼語文의 範圍 分類

權 賢 珠*

<목 차>

1. 序 論
2. V1의 特徵
  2. 1 폐쇄류 동사
  2. 2 불완전 폐쇄류 동사
  2. 3 布置, 分配, 安排, 配合, 安置
  2. 4 托, 教, 給, 交, 供
  2. 5 囑咐, 提醒, 告訴
  2. 6 稱—爲, 管—叫, 提名—爲, 提撥—當
  2. 7 陪, 幫, 幫助, 扶, 送
  2. 8 接, 找, 吹
  2. 9 喜歡, 恨, 嫌, 討厭
  2. 10 有, 是, 沒(有)
  2. 11 招, 逗, 惹
  2. 12 由, 任凭
3. V2의 特徵 分析
4. V와 名詞性 成分 N
5. 兼語文의 範圍分類
6. 結 論

1. 序 論

兼語文 문장은 'NP1 + VP1 + NP2 + VP2'로 나타낼 수 있으며, NP2는 구조상 VP1의 목적어 위치에 놓일 뿐 아니라, VP2의 주어 위치에 놓인다. 이러한 구조의

* 安養科學大學 講師.

특수성 때문에 어법분석에 있어 兼語文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中心語分析法의 관점에서는, 한 문장은 하나의 주어 중심어와 하나의 술어중심어만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兼語文의 술어부분은 두 개의 동사중심어로 구성된 복합 술어로 분석되므로 中心語分析法으로는 兼語文을 분석할 수 없다. 또한 直接成分分析法을 따르면, 한 문장 내의 각각의 성분들은 하나의 문장 성분만을 담당해야한다. 그러나 兼語文의 구조상, 兼語성분 NP2는 VP1의 목적어이면서 VP2의 주어이므로 直接成分分析法으로도 설명하기 힘들다. 兼語文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법적 특성 때문에, 문형 연구에 있어서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兼語文의 범위에 대한 문제 또한 여러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兼語文의 여러 유형을 분석하고, 兼語文과 동일한 구조의 여러 문형들을 비교 분석하여, 그 범위를 고찰해 보려한다.

2. V1의 特徵

兼語文에서 V1은 의미상 중요한 성분이다. 많은 어법서에서 겸어문 V1는 '致使', '使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언급하였고, 겸어문 문형의 특징 중 하나가 使令動詞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1] 李臨定은 겸어문 V1 동사를 '使, 叫, 讓, 要, 令' 등의 單純使令意味와 '命令, 請, 逼, 催' 등의 多義使令意味로 나누었으며, 또 孟琮等등 여러 학자들은 V1은 '使令'의미를 가지며, V2는 첫 번째 동사로 인한 결과' 라고 보았다. 兼語文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V1으로 구성된 유형에는 아래 몇 종류의 동사가 있다.

1) 胡裕樹 1987, 李臨定 1986, 呂叔湘 1980, 孟琮等 1987

www.kci.go.kr

2.1 폐쇄류 동사

(1) 這個消息使他們非常高興。
이 소식은 그들을 매우 기쁘게 했다.
(2) 他叫我沏水來……
그는 나에게 차를 끓여오게 했다.
(3) 我累了，你讓我歇會儿。
나 힘든데, 나 좀 쉬게 해줘.

이러한 동사 유형에는 使, 讓, 叫, 令이 있으며, 이 동사들로 兼語文을 구성하면, 그 어휘의미는 단순하게 '致使'만을 나타낸다. 구조상 이 동사들은 반드시 V2부분을 가져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되거나, 어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예문 (1)에서 V2를 없애면, 예문 (4)가 되는데, 비문이 된다.

*(4) 這個消息，使他們

또 예문 (2)에서 V2를 없애면 그 의미는 달라진다.

(5) 他叫我

예문 (2)이 (5)로 바뀐 뒤, '叫'는 '致使'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喊叫'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6) 我累了，你讓我
나 힘든데, 네가 양보해줘.

예문 (3)을 (6)으로 바꾸면, '讓'은 '致使' 작용이 없으며, 단지 '寬容', '忍讓'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2.2 불완전 폐쇄류 동사

(7) 國務院命令公職人員不得收受賄賂。
국무원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하였다.
(8) 媽媽請求你諒解。
어머니는 네가 이해하기를 바란다.
(9) 這促使他下了最後的決心。
이것은 그로 하여금 최후의 결심을 내리게 했다.
(10) 咱厂派了個同志去抗美援韓……
우리 공장은 한 사람을 파견하여 항미원조를 하도록 했다.

이 유형의 동사들은 命令、請、請求、促使、派、鼓舞 등이 있으며, 兼語文에서 각각의 어휘의미는 다르지만, 모두 공통적인 '致使'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예문(7)의 '命令'은 '强使'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문(8)의 '請求'는 '懇請'를 나타낸다. 예문(9)의 '促使'는 '推動'의 의미를, 예문(10)의 '派'는 '派遣'를 나타낸다. 위의 예문은 상술한 어휘의미 이외에 '致使'의미를 포함한다. 그것의 致使의미는 구조 형식상 확장을 통해서 오로지 '致使' 의미만을 갖는 동사를 삽입시켜 나타낼 수 있다. 예문(7)-(10)의 각 예들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

(11) 國務院命令公職人員，讓公職人員不得收受賄賂。
(12) 媽媽請求我，讓我諒解。
(13) 這促使他，使他下了最後的決心。
(14) 咱廠派了個同志，讓這個同志去抗美援韓

확장 전의 예문들은 겸어문이며, 확장 후의 구조는 복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의미상에서는 확장 전과 후는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약간의 어감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확장형식은 2. 2 유형의 동사가 겸어문에서 '致使'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겸어동사로 사용되며, 때때로 구조상 V2를 없앨 수 있으나 의미가 불완전하다.

www.kci.go.kr

이외에, N2가 때때로 출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그 V2부분은 직접적으로 V1의 목적어로 쓰여, 동사목적어문장을 구성하며, 언어 환경의 제약이 없을 때 임의를 나타내게 된다.

(15) 龍潭湖允許釣魚了……
龍潭湖에서는 낚시가 허용된다.

예문(15)에서 V1인 '允許'와 V2인 '釣魚' 사이에, N2가 없이 '釣魚'가 V1의 목적어로 쓰였으므로, '釣魚'의 주체는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2.3 布置, 分配, 安排, 配合, 安置

(16) 上級分配我搞旅游。
상급자는 내가 여행하도록 안배하였다.
(17) (她) 安排孩子們都睡下了……
(그녀는) 아이들이 모두 자도록 마련해주었다.

이 유형의 致使의미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使令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포함시키기 어렵다. 문형상 겸어문을 제외하고, 흔히 동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문장을 구성한다. 예를 들면,

(18) 安排吃、住。
먹고, 자는 것을 안배하다.

예문(18)의 '吃, 住'는 '安排'의 목적어로 쓰였다. 이 외에도 명사목적어, 이중목적어 등을 가져, 일반적인 문형을 구성할 수 있다.

2.4 托, 教, 給, 交, 供

(19) 她們都托她買東西。
그녀들은 모두 그녀가 물건을 사도록 맡겼다.
(20) 我教他們學英語。
나는 그들에게 영어를 배우게 했다.
(21) 孔乙己給小孩子回香豆吃。
孔乙己는 아이들에게 回香豆를 주어 먹도록 했다.
(22) 委領導留給新的同志一段時間熟悉工作。
위원회 지도자는 새로 온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어 일을 익히게 하였다.

이 유형은 종종 앞 동사 뒤에 '給'가 와서 하나의 합성어를 구성한다. '留給', '交給, 分給, 配給, 送給, 賣給' 등이 있다. 의미상에서 보면, 이 유형의 동사 자체에는 '致使'의미가 없고, 의미관계상 동사 뒤에 자주 이중목적어가 오는데, 하나는 與事로 쓰이고, 다른 하나는 受事나 시간, 혹은 처소 등일 수 있다. 예문(21)의 '小孩'는 여사목적어로 쓰였고, '回香豆'는 수사목적어로 쓰였다. 예문(22)의 '新的同志'는 여사목적어로 쓰였고, '一段時間'은 시간목적어로 쓰였다. 이러한 유형은 겸어문을 구성하는 것 외에, 자주 이중목적어문을 구성한다. 상술한 2. 1 – 2. 4 유형은 다소 상이함이 있지만, 兼語文 동사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2.5 囑咐, 提醒, 告訴

(23) 年輕人提醒我該走了……
젊은이가 나에게 가야한다고 일깨웠다.
(24) 小華囑咐他路上小心敵機。
小華는 그에게 길에서 적기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25) 人們告訴我必須有百折不回的毅力和決心。
사람들은 나에게 반드시 백절불굴의 의지와 결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www.kci.go.kr

이 동사들은 어휘의미에 致使의미가 없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중목적어 문장을 주로 구성한다.

2.6 稱--爲, 管--叫, 提名--爲, 提撥--當

(26) 所以秦稱人民爲黔首, 漢稱仆隶爲蒼頭……
그러므로 秦은 人民을 黔首으로 칭하며, 漢은 仆隶을 蒼頭이라 칭했다.
(27) (我)提名魏錦星爲优秀教授。
(나는) 魏錦星을 우수교수로 추천했다.
(28) 局面准備提撥他當副局長。
기관 내에서는 그를 부국장으로 발탁시키도록 준비한다.

이러한 유형은 선행하는 동사 V1 뒤에 '爲', '當', '叫', '作'등 비동작 동사들이 와서, 앞뒤로 호응하는 구조를 이룬다. 선행하는 동사 V1에는 致使의미가 없으며, 이러한 문장 형식의 일부는 뒤쪽의 비동작 동사를 제거해서 이중목적어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29) 所以秦稱人民黔首, 漢稱仆隶蒼頭……
(30) (我)提名魏錦星优秀教授。

2.7 陪, 幫, 幫助, 扶, 送

(31) (張木匠) 連明帶夜陪着小飛蛾玩。
(張목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小飛蛾과 함께 놀았다.
(32) (我) 幫助教師們提高業務水平。
(나는) 교수님들이 업무수준을 올리는 것을 도왔다.
(33) (學生) 按俗例送酒食請先生吃。
(학생은) 관습에 따라 술과 음식을 먹고, 선생에게 먹도록 청한다.

이러한 유형은 致使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구조상 공범주는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가리키므로 몇 가지 가능성을 형성한다. 예문(31)의 공범주는 '張木匠'이기도 하며, '小飛蛾'이기도 하다. 예문(32)은 공범주와 주절의 목적어 N2가 동일한 것을 나타내어 兼語文과 같다. 그러나 예문(33)은 공범주와 주절의 주어가 같아서, 문형상 連動文과 같다.

이외에, 공범주가 이러한 유형의 동사문형에서 존재하여 나타내는 隨意性때문에, 여러 구조로 형성될 수 있다.

(34) 我馬上帶您去吃飯。
제가 당장 당신을 모시고 식사하러가죠.
(35) (我) 幫你復習。
(내가) 너 복습하는 것을 도울게.

예문 (34), (35) 두 문장은 兼語文이 될 수 있다. (34)는 '您去吃飯'과 '我去吃飯'를 나타낸다. 예문(35)는 '你復習'를 나타낸다. 이 두 문장은 공범주가 주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목적어도 가리킬 수 있는 문장형식이므로, (34)는 '我和您都去吃飯'를, (35)는 '我與你都復習'를 나타낼 수도 있다.

2.8 接, 找, 吹

(36) (老板) 接他回天津工作。
(사장님은) 그가 천진으로 돌아가 일하도록 연락하였다.
(37) 李老師找個人教你。
이 선생님은 너를 가르칠 사람을 찾는다.

이 동사들도 致使의미가 없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어+술어+목적어를 구성하므로 명사목적어를 갖는 타동사라고 볼 수 있다.

www.kci.go.kr

2.9 喜歡, 恨, 嫌, 討厭

(38) 我恨自己太胆小懦弱……
　나는 내가 너무나 배짱 없고, 나약함을 원망한다.
(39) (小華) 喜歡他對自己竟那麽熱烈又那麽腼腆。
　(小華는) 그가 자기에 대해 의외로 그렇게나 열정적이면서도 또 쑥스러워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동사들의 V2는 V1의 원인을 나타내므로, 致使작용이 없다. 예문(38)에서는 '因爲自己太胆小懦弱, 所以才恨自己'를 나타내고, 예문(39)은 '他熱烈, 腼腆'했기 때문에, '小華才喜歡他' 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동사문형은 兼語文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문장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2.10 有, 是, 沒(有)

(40) 從前有個老人叫愚公。
　옛날 愚公이라는 노인이 있었다.
(41) 沒有一個學生往教室里走……
　한 학생도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다.
(42) 是他帶頭冲上去。
　그가 앞장서서 돌진하였다.

이 유형은 致使의미가 없으며, V1 앞에는 시사주어가 출현 할 수 없으므로, 兼語文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그 중 '有(沒有)'는 종종 후행하는 명사가 확정적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예문(41)에서 '一個'를 '這些(個)' 나 '那些(個)'로 바꿀 수 없다. 또한 예문(42)의 '是'는 '他'를 강조한 것이다.

2.11 招, 逗, 惹

(43) 他那手二胡, 才招人喜歡呢。
　그의 二胡는 비로소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44) (張木匠)想逗小飛蛾笑……
　(張목수는) 小飛蛾를 웃게 하고 싶었다……

이 유형은 모두 '讓'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45) 他那手二胡, 才讓人喜歡呢。
(46) (張木匠)想讓小飛蛾笑。

2.12 由, 任凭

(47) 這樣的事情, 由組織上去考慮吧。
　이런 일은 조직 안에서 고려해보렴.
(48) 任凭老錫匠一個人把他收拾了!
　한 사람의 늙은 주석공 마음대로 그를 벌주게 하였다.

위의 두 예문의 '由'와 '任凭'은 모두 '讓'으로 대체할 수 있다.

(49) 這樣的事情, 讓組織上去考慮吧。
(50) 讓老錫匠一個人把他收拾了。

3. V2의 特徵 分析

겸어문 문형에서 V2는 자유롭기 때문에 의미특징을 귀납하기는 어렵지만, 구조상 時態 를 나타내는 시간부사 '已經'('已'), '正在'('正', '在'), '將要'('將', '要')의 수식을

www.kci.go.kr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V2 뒤에 '着', '了', '過', 動詞重疊, 數量句, 趨向動詞 등을 포함한 附加成分을 수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겸어문에서 V2는 V1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V2는 V1의 후속부분 또는 補充部分 이라고 칭한다. 또 V1에서 V2까지 연속되어 시간상의 선후관계에 있으므로, 항상 V2가 생성되는 시간은 V1 후이어야 하며, V1의 요구와 '致使' 사용이 있고 나서야, V2가 출현할 수 있다.

(51) 新社會讓你達到目的拉。
신사회는 네가 목적을 달성하게 할 것이다.

예문(51)의 '讓'은 '達到目的'앞에 발생하며, 먼저 '讓'이 있은 후에 '達到目的'할 수 있다. 또한 V1은 반드시 V2를 가져야만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 兼語文의 V2유형은 개방적이어서,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 주술구, 연동문을 막론하고 모든 V2유형을 담당할 수 있다. V2 유형의 공통점은 모두 施事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施事는 어법구조에서 출현 할 수 없다. 이 성분은 의미 작용만 있고, 음성형식은 없는 공범주대명사 성분이다. 또한 V2는 受事, 與事, 結果 등의 목적어를 갖는다.

4. V와 名詞性 成分 N

V1은 일반적으로 施事와 受事, 두 가지 명사성 성분을 갖는다. 그 중 '使'는 일반적으로 시사를 갖지 않으며, 非施事[2]와 受事를 갖기를 요구한다. 兼語文에서 施事('使'의 非施事를 포함)는 일반적으로 전체문장의 주어로 쓰이며, 受事는 일반적으로 V1의 목적어로 쓰인다. 예를 들면,

2) 非施事는 수단, 원인, 방식을 포함한다.

(52) (他) 要石山柏跟他一塊走。
(그는) 石山柏이 그와 함께 가길 원했다.
(53) 這個消息又使她多麽興奮。
이 소식은 그를 매우 기쁘게 했다.
(54) 跟他相處的那一段日月, 使我終生難望。
그와 함께 지낸 그 시절은 나로 하여금 평생 잊을 수 없게 했다.

예문(52)의 V1 要는 施事(他)와 受事(石山柏)를 모두 갖는다. 그러나 예문(53)의 V1 '使'는 원인인 '這個消息'와 受事 '她'를 갖는다. 예문(54)의 V1인 '使'는 시간과 受事 '我'를 갖는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될 수 있는데, 兼語文의 주어인 N1도 생략 가능하다. 그러나 N2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생략할 수 없고, 만약 생략하게 되면, V2는 직접적으로 V1의 목적어로 쓰인다. 이것은 구조상 동사목적어문장이며, 兼語文이 될 수 없다.

(55) 他們煽動毁我軍力。
그들은 나의 병력을 무너뜨리는 데 선동하였다.
(56) 自從一聲令下, 只許種粮, 不許種瓜……
명령이 내려지고부터, 식량을 심는 것만 허락되고, 과일을 심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 예문은 V2가 직접적으로 V1의 목적어로 쓰인 것이므로, 兼語文을 구성하지 않는다. 예문(55)의 V2인 '毁我軍力'는 V1인 '煽動'의 수사목적어로 쓰였다. 예문(56)의 V2인 '種粮'과 '種瓜'는 V1 '許'의 목적어로 쓰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V1의 목적어는 반드시 施事(혹은 原因, 方式, 手段, 時間)와 受事 가지며, 이러한 NP는 반드시 顯性詞로 쓰여야 한다.

www.kci.go.kr

5. 兼語文의 範圍分類

일반적인 N1 + V1 + N2 + V2 문형은 구성상 兼語文에 포함되는 것 같으나,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 상술한 여러 유형 중에서 폐쇄류 동사와 불완전 폐쇄류 동사만이 확실한 致使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유형들은 致使의미가 뚜렷하지 않다.

겸어문을 정의 내릴 때, V1을 使令동사라고 정의하는 견해는 매우 억지스러우며, 겸어문의 범위 또한 지나치게 좁게 보게 된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2. 3 - 2. 12 유형의 동사로 구성된 문형의 분류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兼語文을 분류할 때 중요한 기준은 V1동사의 '致使'의미인데, 이는 폐쇄류 유형의 동사가 겸어문을 구성할 때 '致使'의 의미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 V1은 使令의미를 나타내고, V2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곧 V2유형의 출현이 V1동사로 인해 야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어 겸어문을 구성한다. 또한 兼語文문형을 확정지을 때, 먼저 의미상 '致使'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 후에 '兼語成分'을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한 동사 모두가 兼語文 동사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兼語'를 가지고 있는 듯 한 아래의 여러 문형 또한 兼語文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57) 我買了個桌子, 三條腿。
　　나는 다리가 세 개인 탁자를 샀다.
(58) 小飛蛾生了個女儿叫"艾艾"……
　　小飛蛾는 '艾艾'라는 딸을 낳았다.

위 문장은 兼語文이라고 보지 않는데, 이것은 '兼語'가 兼語文을 이루는 유일한 기준이 아님을 설명해준다. 여기에서는 '致使'의미만을 갖는 폐쇄류와 불완전 폐쇄류 유형을 겸어문이라 생각하고, '兼語'를 갖는 그 이외의 동사들을 의미상 겸어문이라 생각하겠다. 겸어문이 적절한 범위 확정은 '致使'의미를 어떻게 보는가에 있다.

致使의 함의는 영어의 'Cause'의 의미[3]에 상응하는데, 그것은 致使의미 이외에, '모종의 결과를 일으키거나, 어떤 국면을 초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致使를 '한 동사의 작용으로 다른 한 동사의 출현을 야기시켜, 선행하는 동사 의 결과가 되게 하며, 선행하는 동사는 致使의미의 특징을 갖는다' 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兼語文동사의 유형은 폐쇄류 동사와 불완전 폐쇄류 동사들로 제한되며, 2. 3의 布置, 分配, 安排, 配合, 安置와 2. 4 와 2. 7 유형의 일부분도 겸어동사 유형에 포함된다.

폐쇄류 동사들은 '使'를 사용한 복문형식을 통해 致使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확장법을 겸어문의 범위를 검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확장법이 가능한 문장의 원래의 문형은 겸어문이며, V1도 겸어동사라고 볼 수 있다.

앞에 서술한 여러 동사 유형 안에서도 어떤 것은 확장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확장할 수 없는 것이 있다. 2. 5 동사와 2. 6 동사의 대부분은 확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겸어동사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2. 6 동사 유형 중 일부 V2가 '當'으로 구성되는 것은 확장할 수 있으므로, 兼語文에 포함시켜야 한다. 단, 2. 11 유형과 2. 12 유형의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확장될 수 없지만, '讓, 使' 등과 대체될 수 있으므로 겸어동사에 포함된다.

6. 結 論

앞에서 兼語文에서의 V1, V2의 특징을 살펴보고, 여러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겸어문과 일치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문형들과의 비교하여 兼語文 문형의 범주를 고찰해보았다.

3) John Lyons 1968.

www.kci.go.kr

兼語文에서 致使의미가 V1유형의 공통적인 의미특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V2는 구조상 時態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으며, V2 뒤 附加成分을 수반할 수 있다. 兼語文의 致使의미는 V1이 다른 유형의 V2나 狀態詞의 출현을 야기 시켜, V1의 결과 혹은 V1로 인해 야기되는 모종의 狀態가 되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兼語文은 복문형식을 통해 致使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확장법이 가능한 문장이 兼語文의 검별을 가능하게 한다. 복문형식 변환 이전의 문형은 겸어문이며, V1도 겸어동사라고 볼 수 있다.

< 參考文獻 >

鄧守信(1994), 漢語使成意義, ≪功能主義和漢語語法≫, 北京語言學院出版社.

丁聲樹 等(1999), ≪現代漢語語法講話≫, 商務印書館.

胡裕樹(1987), ≪現代漢語≫, 上海教育出版社.

李臨定(1986), ≪現代漢語句型≫, 商務印書館.

宋玉柱(1991), ≪現代漢語特殊句式≫, 山西教育出版社.

邢 欣(1995), ≪現代漢語特殊句型研究≫, 新疆科技衛生出版社.

邢福義(1996), ≪漢語語法學≫, 東北師範大學出版社.

張伯江, 方 梅(1996), ≪漢語功能語法研究≫, 江西教育出版社.

Robert Freidin 서진희 外(譯)(1997), ≪生成統辭論의 基礎≫, 한국문화사.

John Lyons(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胡裕樹, 範 曉(1985), <試論語法研究的三個平面>, ≪新師範大學學報≫ 2期.

金相姝(1984), <連動-兼語文 分析>, ≪中國人文科學≫ 3.

賈慶閣(1988), <謙語式研究述評>, ≪言語文字學≫ 5.

陸檢明(1994), <同類詞連用規則>, ≪中國語文≫ 5

邢 欣(1984), <論兼語式的深層結構>, ≪新疆大學學報≫ 1期.

徐烈炯(1984), <管約與結束理論>, ≪國外言語學≫ 2期.

楊 因(1982), <使動兼語式的一種鑒別格式>, ≪蘭州學報≫ 3期.

趙世開(1986), <語言結構中的虛範疇>, ≪中國語文≫ 1期.

宋玉柱(1998), <謙語爲與事的謙語句>, ≪漢語學習≫ 6.

李載勝(1982), <兼語文文章에 關한 小考-構造와 分析을 中心으로>, ≪慶南大學校論文集≫ 9.

朴建榮(1996), <現代 中國語 '兼語文'의 類型 研究: 類型의 擴張에 관하여>, ≪中國語文學論集≫ 8.

< 中文提要 >

在現代漢語兼語句型被當作結構特殊的句型。在構成兼語句型里, V1是很關鍵的成分。通過對兼語句型V1類動詞詞匯意義的分析, 從中概括出這類動詞的共同語義特征, 卽致使意義。致使意義是指由V1而致使或導致、引起V2的出現。致使意義可以通過句型擴展, 把語兼語句型擴展成能帶"使, 叫, 讓"等單純表致使義的動詞的復句型試而表現出來。帶有致使特征的動詞就歸到兼語動詞V1類里。

在對兼語句型與小句做賓語句型的比較中, 發現了兼語句型V2前不能用'已經、正在、將要'三個時態限制詞來修飾, 而小句做賓語句都能加這三個詞來修飾。這就是漢語的動詞短語在做句法成分時有動態和靜態之分。兼語句型V2是靜態結構, 而小句做賓語句的V2是動態結構。漢語里加限制詞的分布規律是, 當句型里能帶有限制詞時, 限制詞出現與否是自由的。所以限制詞規則是一個可選性規則。而當句型里不允許帶有限制詞時, 限制詞絶對不能出現, 這時它的出現與否是有限定的。

關鍵詞: 兼語文、兼語動詞、單純表致使義的動詞、致使意義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 간
2008. 7. 20	2008. 8. 4	2008. 8. 16	2008. 9. 20	2008. 9. 30

www.kci.go.kr